

백승근 대광위원장, “교통안전공단, 미래차 시대 앞장서야”

- 1일 한국교통안전공단 40주년 기념식 맞아 OECD 10위권 이내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, 자율차 시대 적극 대응 당부 -

-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7월 1일(목)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(김천)에서 열린 공단 창립 4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였다.
 - 백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“한국교통안전공단은 40년 동안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자동차 안전을 책임져 왔다”고 하면서,
 - “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실험도시인 K-City를 구축하고 지난 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최초로 3천명대로 감소한 것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이 만들어낸 결과물”이라며 관계자를 격려했다.
- 이어 백 위원장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“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은 여전히 OECD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”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고, “교통안전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OECD 10위권 이내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”을 당부하였다.
 - 또한 “전기·수소차 등 미래자동차 시대를 대비한 운행 안정성 확보 및 검사 역량 제고, 자율자동차 상용화 시대를 대비한 레벨4 이상 자율차의 안전기준 마련, UAM(도심항공교통) 및 드론산업 성장에 대비한 고급인력 양성 등 새롭게 도래하는 미래자동차 및 교통환경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한다”고 주문하였다.
- 백승근 위원장은 유공자를 포상하는 등 공단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, “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세계 최고의 교통안전 전문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덧붙였다.

2021. 7. 1.

국토교통부 대변인